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시네마 2018.07.15
NO.4



과르지 않는
호러의 심물

웨스 크레이븐,
조지 A. 로메로, 토브 후퍼의 세계



INTERVIEW 호러영화의 영원한 주인공 바바라 크램튼
FEATURE 주말 BIFAN 스케치

“비타민C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대한민국 1등 비타민C
고려은단
비타민C1000



[201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무기질 제품군 생산실적기준 매출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비타민C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57.6%]



E V E N T

12:00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 피칭 (B.I.G)
고려호텔 2층

12:30
메가토크 '한국독립영화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GV소풍 2관

13:00
호러영화퀴즈대회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14:00
VR 패널 토크 (B.I.G)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15:00
메가토크
'장르를 달리는 여성 영화인'
CGV부천 7관

16:00
한국 감독들의 해외 프로덕션 협업:
아시아에서 넷플릭스까지 (B.I.G)
고려호텔 2층

19:00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OST 산책
부천시청 마루광장

20:30
<우리집 이야기> 아와상영
부천시청 잔디광장

표지 바바라 크램튼
사진 오계옥

S T A F F

발행인 배경록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이주현 김현수 김소미
객원기자 김정현
사진 오계옥
사진객원 박종덕
디자인 김윤희 권지혜
제작총괄 심은하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BIFAN board



계속되는 매진 행렬

부천시청 현장 티켓부스에 마련된 상영시간표가 매진을 알리는 스티커로 가득하다. 주말을 맞아 많은 관객이 영화제를 방문했다. 14일(토) 오전 9시30분을 기준으로 총 84회의 상영이 온라인 매진되었다. 화제작의 현장구매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어서 티켓부스로 향하자.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감독 구혜선에 관하여

영화감독 구혜선의 메가토크 '영화 그리고 나, 감독 구혜선을 말하다'가 14일(토)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렸다. 단편 데뷔작 <유쾌한 도우미>(2008)와 가장 최근에 연출한 단편 <미스터리 핑크>(2018) 두 편의 단편영화를 들고 BIFAN을 찾은 구혜선 감독은 끊임없는 창작욕에 대한 유쾌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줬다. 최근에는 "자신감도 상실하고 소심해졌다"고 운을 뗀 그녀는 "여성으로서 접근하는 문제, 나이 들며 느끼는 상실감과 아쉬움" 등이 주로 작품의 소재가 되며, "혼자 일을 안 하고 쉬는 시간"이아말로 창작력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혼자 각본, 연출, 편집, 음악 등을 도맡는 이유는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라는 솔직한 답변은 물론, "특이하고 아름답고 무서운 사랑이야기, 호러 멜로를 만들고 싶다"는 차기작 계획 소식까지. 감독 구혜선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현수



영화제를 뜨겁게 달군 '뽀빠히틱 플리마켓'

14일(토) 부천시청 1층 로비에서 19개의 업체가 참여한 '뽀빠히틱 플리마켓'이 열렸다. 단 하루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씨네21>의 굿즈, 미디어캐슬과 인디스토리를 비롯한 영화사의 굿즈, 시공사와 여러 출판사에서 준비한 영화 도서, 아미도 프로덕트와 카와이 호러 같은 업체의 캐릭터 굿즈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플레인 아카이브의 DVD와 소시민워크에서 준비한 '호러 눈알 뱃지'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놓치지 말자, BIFAN 기념품'

올해도 판타스틱한 기념품들이 관객을 기다린다. 부천시청과 CGV부천 6층, CGV소풍 7층, 한국만화박물관에 위치한 굿즈샵에서 역대 기념품을 모아놓은 랜덤박스부터 티셔츠, 뱃지, 에코백까지 다양한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다. 단, 정우성 특별전 굿즈는 부천시청 굿즈샵에서만 판매된다. 판타스 멤버와 비판홀릭 카드 소지자는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소주잔 세트와 같이 매진된 물건들도 있으니 서두르자.

B. I. G BIFAN Industry Gathering

부흥하는 아시아 영화 네트워킹 강화가 관건이다

14일(토) 오후2시부터 고려호텔에서 아시아 제작자 포럼 1부-'메이드 인 아시아 포럼', 2부-'DGK, 아시아영화 프로듀서를 만나다'가 열렸다. BIFAN 산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시아영화산업의 트렌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부에는 <신과 함께> 시리즈를 만든 리얼라이즈픽처스 원동연 대표와 '베스트 오브 아시아' 상영작 <복수 원정대>의 바네사 R. 발데즈 프로듀서를 비롯해 중국, 대만, 인도의 프로듀서 5인이 발제를 맡았다. 원동연 대표는 "범아시아 배급 덕분에 1편에서 이미 제작비 전체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한중 합작영화 경험 이 풍부한 이치운 프로듀서, <사탄의 승배자>의 수닐 G. 삼타니 프로듀서와 홍콩, 베트남의 프로듀서 총 4인이 패널로 참석했다. 수닐 G. 삼타니 프로듀서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박스오피스 1위로 기록된 <사탄의 승배자>가 CJ E&M과 협력한 과정을 자세히 전했다.

김소미



업데이트는 신속 정확하게

김 건 규

온라인팀 홈페이지 기획 및 관리

맡은 업무를 소개해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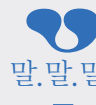
영화제 시작 전에는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지금은 영화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한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은 어땠나.

내 홈페이지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 완벽을 기했다. 개막작 <언더독>이 9초만에 매진됐을 땐, 문제가 생길까 봐 무척 긴장했다. 최근에 온라인 예매에 어려움을 겪은 관객이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에도 더 신경 쓰고 싶다.

영화제 현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영화제의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 그렇게 아쉽지는 않다. 글 김정현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지금의 시간도 나고,
그 이후의 시간도 나다"

→ 메가토크 '영화 그리고 나, 감독 구혜선을 말하다' 행사에서 구혜선 감독, 요즘 뽀빠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며.

"1편이 성공하면 배우들이 개런티를 세계 부를까봐 2편까지 한 번에 찍었다."

→ 아시아 제작자 포럼에서 <신과함께> 시리즈의 제작자 원동연, 1, 2편을 동시에 찍은 이유에 농담반 진담을 던지며.

"한국영화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맘껏 다 해봤다."

→ 판타스틱 단편 결장전 GV에서 이원석 감독, 단편 <랄라랜드>의 발칙한 상상력의 비결을 묻자.



호러가 나를 선택했다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 바바라 크램튼

1980~90년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호러퀸 바바라 크램튼이 BIFAN을 찾았다. 스튜어트 고든의 <리애니메이터>(1985), <지옥 인간>(1986), <사탄의 테러>(1995) 등에 출연하면서 스크림 퀸으로 이름을 떨친 바바라 크램튼은 클래식 호러영화의 주인공답게 호러라는 장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올해 BIFAN은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으로 바바라 크램튼을 초청했다. 30여년 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금발의 단발머리를 하고 부천을 찾은 바바라 크램튼은 열정적으로 한국영화와 장르영화에 대한 애정을 피력했다.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으로 BIFAN을 찾았다.

BIFAN을 스톱킹하고 있었다. (웃음) 그만큼 한국영화에 관심이 많다. 언젠가 BIFAN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판타스틱페스트에서 남종석 프로그래머를 만났다. BIFAN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 했더니 심사위원으로 초대해 주었다. 꿈이 이루어졌다.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인다. 개막식 날 심사위원 대표로 무대에 설 때도 한국 장르영화들이 보여주는 깊은 감정과 울음(the crying)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연기할 때를 생각해보면, 감정을 완전히 보여주는 대신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영화를 찍을 땐 대체로 그랬다. 최근의 출연작 <나를 찾아봐>(2015)에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를 연기했는데 그때도 감독이 울음을 참으라고 했다. 더 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감독이 '노노노' 그러더라. (웃음) 반면 한국영화는 슬픔과 분노 등의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영화에 꼭 우는 장면이 있다. 그런 감정 신이 영화에 더 몰입하게 한다. 감정을 깊게 건드린다. <괴물>(2006)의 장례식장 장면이라든가, <부산행>(2016)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공유)가 오열하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다. 그러한 모습이 내게는 인간 본연의 모습처럼 보인다.

심사위원으로선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심사할 계획인가.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감독 자신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전이 분명해야 전하고 싶은 진실 또한 잘 드러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야기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배우도 그 요소 중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내러티브가 강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다이내믹한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제 기간에 <지옥 인간>도 특별상영 된다. 스튜어트 고든 감독과 함께 작업한 <리애니메이터>, <지옥 인간>을 통해 '할리우드 호러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지옥 인간>이 만들어진 지 35년이 흘렀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줘서 고맙다. 호러영화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내가 호러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호러영화가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이후 꾸준히 장르영화에 출연하면서 느낀 건, 호러 장르 안에선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감정이 구현될 수 있다는 거였다. 그래서 호러영화의 팬이 되었다. 실제로 <지옥 인간>은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시도한 작품이었다. 색시한 팜파탈이 되었다가, 불안한 감정에 휩싸인 인물이 되었다가, 세상을 구하는 히로인이 되었다가. (웃음) 쉽지 않은 도전을 했던 작품이고, 또한 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리애니메이터>와 <지옥 인간>이 모두 흥행에 성공하고 호러영화의 클래식이 되면서 나도, 스튜어트 고든 감독도 이후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창의적인 장르영화 감독들과의 작업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디신에서 창의적인 신진 감독들과 많이 작업했다. 그런데 감독들의 언어는 다 다르다. 어떤 감독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연기 지도를 하고, 어떤 감독은 배우가 준비한 대로 편하게 연기하게 놔둔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서 배운 건 융통성이다.

글 이주현 · 사진 오계옥

Interview

"제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밤의 문이 열린다〉 유은정 감독

유은정 감독의 〈밤의 문이 열린다〉는 BIFAN의 국제경쟁 부문인 '부천 초이스: 장편'의 유일한 한국영화다. 또한 경쟁부문에 선정된 한국 장편 중 유일한 여성 감독의 영화다. 한국의 여성 장르영화 감독이 이토록 부재하다는 사실은 씁쓸하지만, "호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장르적으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유은정 감독을 만나니 랜스레 든든하다. 유령이 되어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통과하는 혜정의 이야기 〈밤의 문이 열린다〉는 유은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유령이 되어 과거를 돌아보는 여자의 이야기다.

돌이킬 수 없거나 지나간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유령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전부 만들고 싶었다. 구체적으로 영감을 받은 전시도 있는데, 2015년 여름에 김희천 작가의 비디오 작품 〈바벨〉을 봤다. "요즘은 죽지 않으려고만 하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라는 〈바벨〉속 대사가 이야기의 실마리가 되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도 벅찬데, 제대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과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혜정 캐릭터에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상징하는 구석이 있다.

또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이나 집을 산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성공을 꿈꾸기 보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최소한으로 방어를 하며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내게도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주변이 불안정하더라도 나만 안정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과연 옳은 건가 싶다. 우리는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혜정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레퍼런스로 삼은 영화들이 있다.

우선 구로사와 기요시의 〈회로〉(2001)를 보면서 유령들 또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 필사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예르모 델 토로의 〈악마의 등뼈〉(2001),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잠입자〉(1979)에서도 영감을 받았다.

주요 캐릭터가 모두 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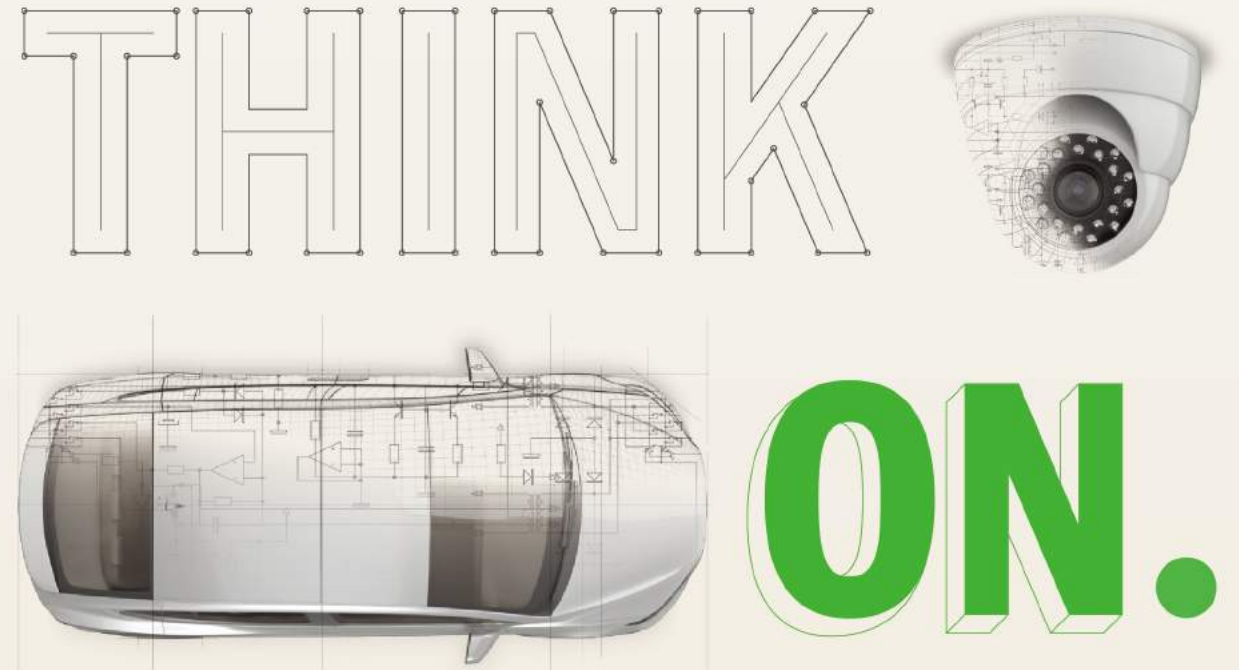
단편영화를 만들던 시절부터 호러영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시나리오 리뷰를 받으면 내가 만든 남자 캐릭터들이 가상의 인물 같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다. (웃음)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여성 캐릭터를 만드는 건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내 관심사라서 그런 것 같다.

첫 장편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제작 및 투자지원을 받는 건 내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길었다. 내가 그리고 내 이야기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땐 힘이 들었다. 그래도 영화가 완성되고 상영을 앞둔 지금은 설레고 행복하다. (웃음)

글 이주현 · 사진 오계옥

보다 효율적인 혁신이 필요할 때



전 세계 전력용 반도체의 선도 기업



We create the products and resources to help make your solution as efficient and reliable as possible. When you are thinking of Energy Efficient Innovations, Think ON.

WWW.ONSEMI.COM

(구. 페어차일드 코리아 반도체(주))

ON Semiconductor®



Preview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3 CGV부천 3관 BU4 CGV부천 4관 BU5 CGV부천 5관 BU6 CGV부천 6관 BU7 CGV부천 7관 BU8 CGV부천 8관
S02 CGV소풍 2관 S03 CGV소풍 3관 S04 CGV소풍 4관 S05 CGV소풍 5관 S06 CGV소풍 6관 MM 한국만화박물관 SS 송내술안이트홀



밤의 문이 열린다

Ghost Walk

유은정 | 한국 | 2018년 | 90분 | 부천 초이스: 장편
7.15 15:30 S03 | 7.19 12:00 BU3



“내일이 없는 유령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왔던 길을 반대로 걷는다. 잠 들어 있던 모든 어제의 밤을 지켜본 후에야 걸음을 멈춘다.” 영화는 물 기 없는 혜정(한해인)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남자에게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혜정은 자발적 고립에 만족하며 있

는 듯 없는 듯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혼수상태에 빠지고, 유령이 되어 ‘어제의 밤들’을 지켜보게 된다. 유령이 되어 목격하는 지난 날들은 혜정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든다. 교류 없이 지내던 하우스메이트 지연과 효연(전소니) 자매의 사연, 골목에서 마주친 어린 소녀 수영(감소현)의 사정을 알게 된 혜정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을 모른 척 외면할 수가 없다.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 더 정확히는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령이 된 혜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밤의 문이 열린다〉는 장르영화의 장치를 빌려 현실의 살풍경을 보여준다. 외면하거나 분노하거나, 각자의 방식으로 몸부림치는 혜정과 효연의 모습은 고달픈 청년세대의 현실을 비춘다. 잔인한 사건·사고 그 너머를 들여다보려는 묵직한 시선, 삶의 온기를 지켜내려는 따뜻한 의지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단편 〈낮과 밤〉(2012), 〈캐치볼〉(2015) 등으로 주목받은 유은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부천 초이스: 장편’ 부문에 선정된 유일한 한국영화다.

이주현

동물 안락사 Euthanizer

티무 니키 | 핀란드 | 2017년 | 85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15 BU5 13:00 | 7.20 BU3 14:30 | 7.22 BU6 15:00



베이요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동물들을 대신 안락사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는 매번 자신의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주인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한다. 때로는 일에 대한 보수를 동물들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 방식은 여러 사건을 일으킨다. 안락사 과정을 묘사하는 영화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관객은 동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간을 비판하는 베이요라는 인물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공정함을 요구하는 그의 태도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그려지면서 베이요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캐릭터가 된다. 이러한 베이요의 묘사를 통해 영화는 동물 안락사,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안락사의 문제에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 김정현 객원기자

창살 속의 혈투 Brawl in Cell Block 99

S. 크레이그 켈러 | 미국 | 2017년 | 132분 | 금지구역
7.15 CH 20:30 | 7.16 S06 19:30 | 7.21 CH 24:00



직장에서 잘린 뒤 친구의 소개를 받아 마약 딜러로 일하던 브래들리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간다. 감옥에서 그는 임신 중인 자신의 아내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을 죽이면 아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제안을 받아들인 브래들리는 암살 대상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건들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영화는 브래들리라는 인물을 묘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의 캐릭터를 확고하게 구축한다. 그리고 브래들리가 제안을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잠시도 쉬지 않고 결말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관객을 압박한다. 영화의 액션은 느리고 묵직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금지구역 섹션의 작품답게 파괴적이고 잔혹하다. 브래들리로 분한 배우 빈스 본의 연기가 인상적인 깔끔하고 강렬한 액션영화. 김정현 객원기자

타워, 눈부신 날 Tower, A Bright Day

야고다 셀츠 | 폴란드 | 2017년 | 106분 | 부천 초이스: 장편
S027.15 15:20 | S037.17 14:00 | BU67.20 15:30



신예감독들의 존재감이 속속 드러나는 최근 폴란드영화계의 저력을 가늠하게 만드는 작품. 물라는 남편과 딸, 몸이 아픈 엄마와 함께 시골 마을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다. 영화는 딸 니나가 첫 영성체를 마친 직후 물라의 동생이자 니나의 생물학적 엄마인 카야가 6년 만에 등장하면서 급격히 호러적 색채를 띠기 시작한다. 가톨릭 집안에 침투한 이교도적 요소들, 카야의 존재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물라의 히스테리 등이 뒤섞여 강도 높은 긴장감을 형성한다.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부문에서 공개된 후 〈악마의 씨〉(1968), 〈영향 아래 있는 여자〉(1974), 〈멜랑콜리아〉(2011) 등의 뛰어난 이름들을 거론하게 했다. 신경을 긁는 연출과 생생한 캐릭터, 점프컷이 섞인 날 선 편집이 미묘한 리듬감을 만들고, 다소 충격적인 결말까지 조용하지만 섬 없이 나아간다. 김소미



〈시체들의 새벽〉

호러영화의 마르지 않는 샘물

특별전 '3X3 EYES: 호러 거장, 3인의 시선'의
웨스 크레이븐, 조지 A. 로메로, 토브 후퍼 감독의 작품 세계

이용철 영화평론가

올해 부천영화제의 특별전 중 '3X3 EYES: 호러 거장, 3인의 시선' 섹션은 근래 세상을 떠난 세 명의 호러영화 작가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1939년생이며 2015년에 유명을 달리한 웨스 크레이븐, 각각 1940년, 1943년에 태어나 작년에 나란히 세상을 떠난 조지 A. 로메로, 토브 후퍼. 작품의 스타일이나 다루는 주제 면에서 확연히 달랐으나, 그들은 태어나고 죽은 시기 외에 삶의 궤적에서 몇몇 공통점을 지닌 감독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유명 스튜디오나 감독 아래에서 현장 경험을 쌓는 등의 경력이

그들에게는 부재했다. 심리학, 교육학, 철학을 전공한 크레이븐은 강단에 섰던 인물이고, 로메로는 단편영화와 CF를 찍다 친구들과 독립 프로덕션을 차린 경우이며, 미디어와 영화를 배운 후퍼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살았다. 1960년대에 공히 주류 영화계의 바깥에 머물렀던 그들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차례로 데뷔작을 내놓았다.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데뷔작은 중요성과 가치의 측면에서 호러영화를 넘어 영화의 역사에서 한 장을 차지한다. 일례로 '가디언 지'는 후퍼의 〈텍사스 전기톱 학살〉(1974)을 '영화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영화 중 한 편'으로 뽑았다. 세 감독이 데뷔했던 시기는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태동해 세상을 뒤흔들 때였다. 데니스 호퍼, 밥 라펠슨, 할 애쉬비, 프랜시스 코폴라, 마틴 스코세지,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들이 젊은 시선으로 새로운 미국 영화를 만들던 시간에, 세 감독은 미국인과 미국 사회의 어두운 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댔다. 로메로의 데뷔작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1968)은 발표 이후 다양하고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전에도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가 없지는 않았으나, 로메로의 영화는 좀비의 이미지와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 좀비라는 거대한 장르의 선구자로 자리 잡았다. 후퍼의 〈텍사스 전기톱 학살〉은 미국 영화의 핵심인 가족과 서부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오즈의 마법사〉(1939)에 나오는 전원의 풍경과 '노란 벽돌 길'은 피의 진창에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감독의 경력을 쌓기 전 포르노그래피 작업에도 참여했던 크레이븐은 우연한 기회에 〈원편 마지

막 집〉(1972)을 찍으면서 자신의 분노와 어두운 욕망을 쏟아부었다. 가족조차 모르게 소규모로 개봉하고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영화는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를 호러영화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렇게 세 감독의 데뷔작은 모두 '컬트 클래식'의 지위에 오르며 '모던 호러'를 정의했다고 평가 받았다. 그들 이후 호러영화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이 호러 작가로 불리게 된 것은, 엄청난 데뷔작을 배신하지 않고 호러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 크레이븐은 호러감독으로서 제일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평범한 백인 중산층의 불안을 다룬 여러 편의 영화를 내놓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나이트메어〉와 〈스크림〉 시리즈를 제작, 연출해 호러영화의 트렌드를 이끌었다. 로메로와 후퍼의 이후 작업은 크레이븐의 영화가 누린 폭넓은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러한 아웃사이더로서의 특성이 어찌면 호러라는 장르의 운영일지도 모른다. 로메로는 〈서바이벌 오드 더 데드〉(2009)까지 좀비 시리즈를 이어가는 한편, 〈분노의 대결투〉(1973), 〈크립쇼〉(1982) 등의 호러 작업을 병행했으며, 제작과 게임에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셋 중 가장 거칠고 야만적인 호러를 만든 후퍼는 영화 인생도 순탄하지 못했다. 비운의 대표작인 〈폴터가이스트〉(1982)를 찍다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와 빛은 불화 등이 그를 변경으로 몰았지만



〈이튼 얼라이브〉



〈나이트메어〉

호러영화에 대한 열정은 죽지 않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제작한) 유작 〈진〉(2013)까지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다.

호러영화의 맛에 길들여진 관객을 위한 추천작

이번 '3X3 EYES: 호러 거장, 3인의 시선' 섹션의 상영작은 세 거장의 대표작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초기작을 섞어서 구성되었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덜 알려진 작품을 중심으로 추천해 보기로 한다. 먼저 웨스 크레이븐. 초기 조니 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나이트메어〉(1984), 잉그마르 베리만의 〈처녀의 샘〉(1960)을 난폭하게 변형한 〈원편 마지막 집〉 사이로 〈공포의 휴가길〉(1977)이 있다. 캘리포니아로 떠나던 일가족이 사막 한가운데서 사고를 당한다. 미국 영화에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나서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건강한 사내들은 무력한 상황에 빠진다. 도울 수 있는 건 하늘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이다. 공포의 주체를 숨겨두는 게 크레이븐의 특기인데, 두 번째 영화에서 무서운 존재들이 전면에서 드러나는 데는 삼십 분 정도가 걸린다. 기실 그들은 무서운 존재라기보다 평범한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이어서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로메로의 영화로는 '시체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중인 〈시체들의 새벽〉(1978), 인간의 지능을 지니게 된 원숭이가 역으로 인간들을 덜덜 떨게 만드는 이야기인 〈어둠의 사투〉(1988)가 상영된다. 추천작은 자신을 흡혈귀로 알고 있는 소년의 이야기인 〈마틴〉(1978)이다. 그가 정말 흡혈귀 가문에서 태어난 84살 먹은 소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체에 의문을 품고 사는 흡혈귀가 라디오 DJ와 인터뷰를 나눈다거나 결국 친족에 의해 파괴된다는 설정 등이 흥미롭다. '현실에 마술은 없다'고 되뇌던 소년이 맞이한 사회적 비극으로도 읽히는 작품으로서, 로메로를 좀비 영화의 작가로만 안다면 유럽 예술영화의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이 작품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후퍼의 영화로는 여배우의 치명적 매력 때문인지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 컬트적 존재로 추앙받는 〈뱀파이어〉(1985), 윌리엄 카메론 멘지스의 1953년 작품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리메이크한 〈화성에서 온 침입자〉(1986)가 상영되며, 추천작은 악취미에 가까운 〈이튼 얼라이브〉(1976)다. 정말로 못 만든 영화이며 감독 자신이 제작 말미에 현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도입부의 설정은 히치콕의 걸작 〈사이코〉를 카피했는데, 〈이튼 얼라이브〉는 〈사이코〉자체가 맥거핀인 영화다. 허술한 모델 주인이 무슨 힘으로 연쇄 살인을 벌이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공포의 중심에 서야 할 앨리게이터의 허술한 모형이 헛웃음을 자아낸다. 그러한 호러영화의 맛에 길들여진 관객만 볼 일이니, 이 말인즉슨 설령 본 뒤에 나를 욕하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1



2



3

이번 주말, 인싸스럽게 놀아볼래요?

BIFAN 주말 풍경 스케치

14일 토요일, 부천시청 1층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플리마켓을 준비하는 판매자들과 개장 전에 미리 줄을 서기 시작한 관객들로 붐볐다. 이날을 기점으로 부천시청 광장에 있는 VR 빌리지에서 '2018 VR 상영'이 문을 열었고, 오전 상영작 관람을 마치고 나온 한 관람객은 “금요일 부천시청에서 시작된 야외 방탈출 이벤트에 꾸준히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영화관 밖에서도 페스티벌의 즐거움이 피어오르는, BIFAN의 주말 풍경을 담아봤다.

글 김소미 사진 오계옥, 박종덕 객원기자



4



5

- 1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나이트메어>(1974) 속 프레디 크루거가 올해 BIFAN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천시청 어울마당 입구에 있는 전시물을 통해 피규어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 2 최고기온이 32도를 웃돌았던 14일 한낮, '판타스틱 단편 결작선 6'부문 상영작인 <세상의 종말>의 헤스 C, 마이클 감독과 헤더 마이클스 프로듀서가 한국어 버전 포스터를 들고 시청 주변을 누볐다.
- 3 좀비, 살인마 등으로 분장한 자원활동가들이 영화제 곳곳에서 당신을 습격할지 모른다. 미니올림픽과 비밀 경품이 마련돼 있으니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자.
- 4 14일 오후 시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방탈출 게임에 열중한 관객을 만났다. 어느새 살인 사건에 휘말린 당신, 영화제 공간 일대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살인마를 밝혀라!
- 5 “제 질문은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부천파랑새기자단이 14일 오전 BIFAN을 찾았다. 청소년신문 7월호 취재를 위해 프레스 센터를 방문한 이들은 홍보 담당자의 코멘트를 한 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바쁘게 펜을 움직였다.

트러블로 고통 받는 피부 구하라박스로 구하라!

Dr.메디션 구하라박스 3종 세트

성난 피부 빠르게 잠재우는 완전체 세트
구하라박스가 당신의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드립니다.



FEATURE

The Future is Female

The Women Who Leapt Through Tim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Sci-Fi Films is a special program running throughout BIFAN 2018 that explores the roles of the bold, powerful kick-ass heroines at the forefront of challenging gender limitations on the big screen. The science-fiction genre offers bountiful opportunities to symbolically depict oppressive situations endured by women, while also emphasising the strength and resourceful female protagonists who strive against such restrictions. These women become icons in their own right and are integral to the evolution of female representation on film. BIFAN has selected six Sci-Fi movies that highlight such inspirational women, beginning with the classic *The Stepford Wives* (Bryan FORBES, 1975) about a group of men who seek to replace their wives with obedient robots. Sigourney Weaver's iconic heroine Ellen Ripley takes charge in *Alien* (Ridley SCOTT, 1979), as she battles against not only a patriarchal system but a H.R. Giger's highly sexualised monster as well. Polish entry *Sexmission* (Juliusz MACHULSKI, 1984) follows a group of male scientists who awake from a long period of hibernation to discover a world ruled by women.

The move into the 2000s begins with John CARPENTER's *Ghosts of Mars* (2001), in which a security team encounter horrific violence at a colony on the red planet. *Mad Max: Fury Road - Black and Chrome* (George MILLER, 2015) follows Charlize Theron's Furiosa battle to protect a group of women in a post-apocalyptic land ruled by a tyrant. Rounding out the program is *White Chamber* (Paul RASCHID, 2017), where a Brexit-inspired future UK in which intolerance is rife sees a woman wake up in a room without any memory of how she arrived there.



Mad Max: Fury Road - Black and Chrome

Accompanying this special program is a Female Filmmakers Who Leap Through Time: Megatalk on Sunday July 15th, 3pm at CGV Bucheon 7. Korean film critic PARK Hye-eun will moderate a panel comprised of director BYUN Young-joo (*Helpless*, 2012), director Mitzi PEIRONE (*Braid*, 2018), and actress Shauna MACDONALD (*The Descent*, 2005), where a discussion about female genre filmmakers will take place.

These lauded women have left an indelible mark on cinema with their powerful portrayals - for instance, five films in the Bucheon: Choice program feature the Girl Power icon - and through them the challenge for gender equality can be tackled, and won.

Simon McEnteggart

Barbara CRAMPTON's World of Fantastic Films

Hollywood horror icon Barbara CRAMPTON will take part in a special Megatalk on Tuesday July 17th, after the 2pm *From Beyond* screening at CGV Bucheon 3. Moderated by BIFAN programmer Thomas NAM, the renowned actress will discuss her illustrious career which spans over 30 movies, her distaste for the term 'scream queen,' and working in the Hollywood film industry.

REVIEW

Thoroughbreds

Cory FINLEY | USA | 2017 | 92min | World Fantastic Blue

Writer/director Cory FINLEY proves himself a talent to watch with his debut feature *Thoroughbreds*, a black comedy-thriller about two affluent teens who have murder in mind. Razor-sharp quips and sardonic moral ambiguity is in abundance as emotionless Amanda (Olivia COOKE) reconnects with childhood friend Lily (Anya TAYLOR-JOY) following a particularly macabre incident with a horse. Over time Lily's hatred for her abusive step-father becomes clear, and the duo enlist the help of a washed-up drug dealer (Anton YELCHIN) for assistance.

COOKE and TAYLOR-JOY are perfectly cast as the nefarious spoilt teens. COOKE excels at delivering the hilariously disturbing and ethically questionable dialogue with a great sense of comic timing, while TAYLOR-JOY positively exudes an icy-cold narcissism that belies the fraught emotions that simmer beneath. The chemistry between them is consistently electric, particularly when they debate moral quandaries and devise cunning plans while simultaneously trying to figure each other out. Anton YELCHIN also provides a great turn in his final post-humorous role.

Visually, *Thoroughbreds* is a real treat. The camera beautifully sweeps through the wealthy environs and almost labyrinthine hallways in some impressive long takes, with cinematographer Lyle VINCENT expertly conveying the trappings of the upper classes as well as the unpredictable twists, turns and secrets the protagonists - and the narrative - contain.

Thoroughbreds is a remarkable showcase of emerging cinematic talent. Engaging, thrilling, and darkly funny throughout, the film is a genuine delight.

Simon McEnteggart

INTERVIEW

Mai Nakanishi



Genre enthusiast Mai NAKANISHI has been working in the film industry since 2013, notably as an assistant director for auteur Eric Khoo. She founded the female-centric genre festival 'Scream Queen FilmFest Tokyo,' also working as head of acquisitions at a company specialising in high quality genre films. Ms. NAKANISHI makes her short film debut with *HANA*.

HANA premieres in Fantastic Short Films 16.

HANA is an emotional horror story about a mother and her daughter Hana whose relationship has gone "deadly" wrong. In *HANA*, you can glance into their daily life through the eyes of a young girl who comes to babysit without knowing the dark and tragic past the house harbours.

What inspired you to make *HANA*? What themes do you wish to convey?

HANA is loosely based on my childhood experiences. I had working parents and felt lonely not being able to spend time with my mother. I've added more dramatic circumstances where the mother and daughter never connect physically and emotionally even though they are living under the same roof. I wanted to make *HANA* not as a conventional horror film but a realistic and emotional story of a family with a working mother.

How did being a Korean-Japanese co-production benefit *HANA*?

Although *HANA* was shot entirely in Busan with a Korean cast, people tell me the film has a unique ambience so I think being a co-production helped us produce a 'hybrid' film that is different and fresh.

Simon McEnteggart

Screening 07.15.SUN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301 10:00 잠자는 미녀의 한계 The Limit of Sleeping Beauty 89min / ㉔		302 12:00 호랑이는 겁이 없지 Tigers are Not Afraid 83min / ㉔		303 14:00 GV 다이너마이트 스퀘들 Dynamite Graffiti 138min / ㉔				304 17:30 GV 가비지 Garbage 105min / ㉔			305 20:30 창살 속의 혈투 Brawl in Cell Block 99 132min / ㉔	
MM Korea Manhwa Museum				13:00 럭키호러퀴즈쇼 Lucky Horror Quiz Show		306 15:20 GV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The Merciless 120min / ㉔			307 18:30 GV 나쁜상사 Bad Boss 103min / ㉔			308 21:00 GV 원컷 오브 더 데드(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One Cut of the Dead 95min / ㉔	
S02 CGV Sopoong 2		309 11:00 인디스토리 단편 1 INDIESTORY Shorts 1 64min / ㉔	FREE 12:30 메가토크:인디스토리 20주년 Mega Talk: INDIESTORY 20 Years		310 15:20 타워, 눈부신 날 Tower: A Bright Day 106min / ㉔			311 18:00 GV 퍼스트본 Firstborn 90min / ㉔				312 20:50 세인트 아가타 St. Agatha 98min / ㉔	
S03 CGV Sopoong 3		313 10:30 마신자 2 - 빨간 옷 소녀의 비밀 The Tag-Along 2 107min / ㉔	314 12:40 GV 오늘도 평화로운 Super Margin 90min / ㉔		315 15:30 GV 밤의 루이 열린다 Ghost Walk 90min / ㉔			316 18:10 새벽 3시 3AM Part 3 101min / ㉔				317 20:20 GV 백색밀실 White Chamber 89min / ㉔	
S04 CGV Sopoong 4	318 10:00 GV 체인지오버 The Changeover 95min / ㉔		319 12:30 악령의 화가 Don't Leave Home 87min / ㉔		320 15:00 GV 딥 Deep 86min / ㉔			321 17:30 GV 한 형제의 은밀한 계획 Brothers' Nest 98min / ㉔				322 20:30 GV 우리 집 Our House 80min / ㉔	
S05 CGV Sopoong 5	323 10:00 GV 메이페어 Mayfair 90min / ㉔		324 12:30 GV 라이브하드 Live Hard 100min / ㉔		325 15:2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73min / ㉔			326 18: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75min / ㉔				327 20:30 바이러스 트로피칼 Virus Tropical 96min / ㉔	
S06 CGV Sopoong 6	328 10:00 스텝포드 와이브스 The Stepford Wives 110min / ㉔		329 12:2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 Films 12 68min / ㉔		330 15:00 써니를 찾아서 Sunny 110min / ㉔			331 17:30 성스러운 것 The Sacrament 90min / ㉔			332 19:30 불량소녀 Jailbait 96min / ㉔		
BU3 CGV Bucheon 3	333 10: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 Films 7 71min / ㉔		334 12:30 GV 귀신온천여관 Secrets in the Hot Spring 110min / ㉔		335 15:30 죽음을 부르는 밤 Dead Night 82min / ㉔			336 17:30 작년 겨울, 나와 이별 Last Winter, We Parted 118min / ㉔			337 20:00 GV 아이 크레이지 I'm Crazy 86min / ㉔		
BU4 CGV Bucheon 4		338 10:30 장굴 히어로 Tombiruo 92min / ㉔	339 12:50 옆자리 괴물군 My Little Monster 105min / ㉔		340 15:00 GV 소년 탐정 Young Detectives 95min / ㉔			341 17:40 GV 염력 Psychokinesis 101min / ㉔			342 20:30 GV 카불에 헤비메탈을! Rock Kabul 90min / ㉔		
BU5 CGV Bucheon 5		343 10: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7 Fantastic Short Films 17 73min / ㉔	344 13:00 GV 동물 안락사 Euthanizer 85min / ㉔		345 15:30 GV 법사 Wizard 81min / ㉔			346 18: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6 Fantastic Short Films 16 71min / ㉔			347 20: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8 Fantastic Short Films 18 70min / ㉔		
BU6 CGV Bucheon 6	348 10: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66min / ㉔		349 12: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73min / ㉔		350 15:00 GV 오늘도 위위 The Journey of the 12 Cats 70min / ㉔			351 17: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71min / ㉔			352 20:00 GV 살인멧돼지 Boar 96min / ㉔		
BU7 CGV Bucheon 7	353 10: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73min / ㉔		354 12: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73min / ㉔		FREE 15:00 메가토크:장르를 달리는 여성 영화인 Mega Talk: Female Filmmakers			355 17:30 더블 데이트 대소동 Double Date 90min / ㉔			356 19:30 GV 대관람차 The Goose Goes South 110min / ㉔		
SS Solari Art hall			357 12:00 스파이 캣 Marnie's World 92min / ㉔		358 14:00 요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캣 Legend of the Demon Cat 129min / ㉔			359 17: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1 Fantastic Short Films 21 89min / ㉔					

등급 Rates

- ㉔ 전체 관람가 General ㉔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㉔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㉔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㉔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부럽드 다





BEYOND AUTO. BAVARIAN MOTORS.

MINI 공식 딜러 바바리안 모터스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공식 후원 합니다.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새로워진 디자인의 THE NEW MINI도 만나보시고,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를 경험해 보세요.

BLOG.NAVER.COM/MINIBV

MINI 부천
Tel. 032.285.4600

MINI 목동
Tel. 02.2646.4600

MINI 송도 Complex
Tel. 032.213.4600

MINI 인천
Tel. 032.236.4600

MINI 일산
Tel. 031.8076.4600

MINI 스타필드 고양
Tel. 02.6932.4600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차종명 : MINI COOPER S 3DOOR (자동 6단 스포츠 변속기/배기: 1,998/공차중량: 1,280kg)

복합연비 : 12.6km/L (도심연비/고속도로연비: 11.3/14.9km/L) 등급: 3 / 복합CO2배출량: 134g/km

*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위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